

민관협력의원 설립의 타당성에 관한 지역주민 심층조사

Focus Group Interview on appropriateness to the establishment
of an out-patient clinic with public-private partnership

저자 및 소속 홍성철¹⁾ 이상이²⁾ 박형근²⁾ 오인순³⁾ 현재원⁴⁾

발표자 이상이

진행상황 연구완료

¹⁾ 제주의대 예방의학 ²⁾ 제주의대 의료관리학 ³⁾ 서귀포시 보건소 ⁴⁾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생

발표형식 e-포스터

1. 연구배경 및 목적

서귀포시는 ‘지역사회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의 하나로 의료이용 소외지역(읍·면) 중 한 곳을 선정해 민관협력의원을 설립기로 했다. 민관협력의원은 시가 건물·장비를 제공하고 공모로 선정된 의사 그룹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보건의료에 관한 공적 요구’를 담아 민간 방식으로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주민들이 제주도 전역에서 이용했던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 건수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다년간 자료를 분석했고, 서귀포시를 시내·동부·서부로 구분해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의 자체 충족률을 구한 후, 후보지로 선정된 서귀포시 서부 주민 대상의 심층조사를 통해 민관협력의원 설립의 타당성을 파악했다.

2. 연구방법

조사 대상으로 서귀포시 서부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20명을 선정했고, 최종적으로 19명이 표적 집단 심층면접(Focus Group Interview)에 참여했다. 대상자를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심층좌담을 실시했다. 심층면접은 휴일 일정(8월 29일~30일)으로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의 카페를 임대해 진행했다. 그룹 당 소요 시간은 2시간 정도였다. 응답자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고, 영상 녹화 및 음성 녹취를 진행했다.

3. 연구결과

1)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이용 현황

- 30·40대 주민들은 소아과 등 자녀를 위한 의료기관 이용이 많았으며, 지역사회 의료기관 보다는 제주시나 서귀포시의 병·의원을 주로 이용하고,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이나 시간이 급한 경우에만 읍내의 의원이나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다. 50대 이상 주민들은 읍내 의료기관 이용이 상대적으로 빈번한데, 읍내 의원이나 보건소를 정기적으로 이용하지만 전문 진료나 중증 진료를 위해서는 대부분 시내 병·의원을 이용했다.
- 대정읍 주민들은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에서 읍내 의원(전체 이용의 28.6%) 보다는 타 지역 의원(서귀포시 소재 의원 4.0%, 제주시 소재 의원 57.4%, 제주도 외 소재 의원 10%)을 주로 이용한다. 주된 이유는 소아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의 전문 의원 진료나 전문적 진단과 치료, 건강검진, 응급실 이용이었다. 야간과 휴일에 이용 가능한 읍내 의료기관이 전무하고, 전문 의원이나 응급실 등의 필수 의료가 미흡하고, 읍내 의료기관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부족해 지역사회에서 의료서비스 이용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2) 지역사회 보건의료 환경에 대한 평가

- 의료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기대 수준에 비해 지역사회 내의 의료서비스 충족 수준은 ‘미흡’ 또는 ‘보통’ 수준으로 높지 않았다. 대정읍 주민들은 가장 큰 불편과 불만으로 ‘휴일이나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 읍내 의원들에 대해 ‘일반 진료’, ‘고령층 위주의 단순·반복 진료’ 등을 이유로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신뢰성이 낮다. 의료서비스 질 강화를 위한 기대 사항으로 ‘전문 진료’가 가장 컸으며, 기대하는 과목은 소아과,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건강검진 등이었다.

3) 서귀포 민관협력의원에 대한 태도와 기대

- 대부분의 좌담회 참여자들은 서귀포 민관협력의원 설립에 찬성했다. 19명 중 ‘찬성’이 11명, ‘보통’ 3명, ‘반대’ 2명 등으로 나타났다. 서귀포 민관협력의원에 대한 가장 큰 기대 역할은 ‘휴일 및 야간 진료’이며, 기존의 읍내 의원들에서 해결하지 못한 ‘필수 전문 진료’와 ‘1차 응급 진료’에 대한 기대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4. 고찰 및 결론

- 민관협력의원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휴일·야간 진료 등을 포함한 필수 전문 진료가 공공성을 바탕으로 지속될 수 있어야 하며, 의료의 질이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1차 응급의료와 건강검진에 비해 공공보건, 건강증진, 방문 호스피스에 대한 기대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 서귀포 민관협력의원의 입지에 대해서는 대정읍 중심 지역보다 외곽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로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관협력의원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수익 중심의 운영으로 필수의료의 질과 공공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염려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관리·감독·평가 등이 필요하고 운영 주체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민관협력의원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이 보장된 의료서비스가 필수적이며, 지자체의 적극적 홍보 이외에도 주민의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관리·감독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거나 평가에서 주민 만족도를 반영하는 것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